

# 나주시, 광주전남 최초 '청년 활력소득'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청년의 공공 기여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전남 최초로 '청년 활력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오는 7월 28일부터 대상 청년을 모집해 분기별 30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신규 시책으로 광주전남 최초로 시행하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24세(2001년생) 청년에게 소득 지원을 통해 청년 자립 기반 마련과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나주시 거주 중인 2001년생 청년으로 올해 하반기(3, 4분기) 두 차례 운영한다.

신청자는 분기별 지정된 기간 내 복지 시설,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 나주시 주관 및 후원 행사 참여, SNS 정책 홍보, 청년 커뮤니티 활동 등 4개 분야 중 1개 이상에 참여해야 한다.

활동 계획서와 실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활동 실적과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해 분기별 30만 원 상당의 모바일 나주시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된 상품권은 나주시 가맹점에서 1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 24세(2001년생) 청년 대상 지역활동 참여 시 지급 7월 28일부터 신청, 접수... 지역 정착, 시정참여 유도



신청은 3분기는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4분기는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나주시 청년센터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8월 말까지 3분기 신청자의 자격과 활동실적 등을 확인한 뒤 9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년 활력소득 지원사업은 광주전남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 시책으로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지역 사회 봉사, 행사 참여, 청년커뮤니티 활동 등 사회적 참여와 책임을 전제로 한 정책이다"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꾸준히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 강진해양구조선 1호, 안전한 바다를 향해 첫 항해

전라남도 강진군이 지난 24일 마량항 중방파제에서 '강진해양구조선 1호'의 취항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 이번 구조선은 해양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강진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맞춤형 신조 사업의 성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투입해 23톤급 최신 구조선으로 건조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진원 군수를 비롯해 강진군의회, 전라남도의회, 해양경찰서 및 어촌계 등 관련 기관과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신구 구조선의 첫 출항을 축하하고 무사고 운항을 기원했다.

알루미늄 선체로 제작된 '강진해양구조선 1호'는 전장 20미터, 전폭 4.6미터, 최대속력 20노트의 성능을 갖췄으며, 소화펌프, 구조용 크레인, 고성능 항해·통신장비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첨단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최준 구조선은 2010년 건조돼 선체 노후화 및 구조 장비의 성능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낚시·레저·어촌 체험 관광



이 증가하면서 해양안전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영 (사)해양환경구조협회 강진지역대장은 "이번 구조선 도입은 단순한 장비 보강을 넘어, 지역 어민과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강진만을 가장 잘 아는 우리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정확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수

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해양구조선 1호"는 앞으로 강진 연안 해역에서 인명구조, 침몰 선박 인양, 해양 재난 대응, 어장 정화 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구조선 취항은 강진 해역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대응체계의 출발점"이라며 "작지만 강한 해양안전 거점화 조성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 함평군 대동면, '제1회 주민총회 개최' 성황리 개최

### 250여 명 참여... 지역민 화합과 참여 자치의 본격 출발

전남 함평군 대동면이 '제1회 대동면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본격적인 참여자치 실현에 시동을 걸었다.

함평군은 25일 "대동면 주민자치회(회장 이재갑)가 전남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제1회 대동면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과 투표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동면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주민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결정할 첫 사례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총회에는 25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과 높은 참여 열기를 보여 주민자치를 향한 주민의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회에 앞서 대동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12월 출범 이후 마을 방문 조사, 주민 설문조사,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2건의 주민제안사업과 3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총 5건의 안건을 발굴했다.

주민 제안 사업으로는 ▲행복가득한 장수사진 ▲어르신 지팡이 지원, 주민 참여 예산사업은 ▲이불세탁 서비스 ▲경로당 안전바 설치 ▲기여의 사진관이 상정

됐다.

총회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공식 행사, 안건 설명, 주민자치 교육, 투표 및 개표 결과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안건 설명 시간에는 각 분과 위원이 사업 내용을 설명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진행된 신상선 공감캠페인 대표의 주민자치 교육 또한 주민 역량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사전투표를 진행해 주민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했으며, 현장 투표 후 즉시 개표까지 이뤄진 투명한 신속한 절차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주민자치회의 실행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함평/전광훈 기자

# 노관규 순천시장, "2035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본격 시동

### 대통령 임기 내 유치 확정 목표로 TF 본격 가동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35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한 실무 TF팀을 지난 6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개최 연도 조정, 공동유치 구상, 전략 수립 등 유치 로드맵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6월, 체계적인 유치 준비를 위해 문화관광국장을 단장으로 한 '유니버시아드 유치 실무 TF팀'을 구성했다. TF는 실무부서, 체육회, 외부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했으며, 유치 전략 수립과 정부·국제기구 대응 방안,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등 유치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관규 시장이 직접 주재한 24일 첫 전략회의에서는 기존 목표였던 2037년 또는 2039년 개최 계획을 조정하여, 이

재명 대통령 임기 내 유치 확정을 위한 '2035년 조기 개최'로 전략 방향을 전환했다. 조기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와 사전 외교적 협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여형 유치모델 구상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확보 ▲남해안남중권 9개 시군과의 공동 개최 구상 등 기본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시는 향후 TF 활동을 통해 참여 시군의 의향을 공식 타진하고, 전문가 지문 및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최 구역과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를 유니버시아드 핵심 인프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해당 시설은 2026

년까지 토지보상과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1단계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의 유치 의향 사전 협의도 병행하며, 향후 순천시의회,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대회 유치 추진단'으로 조직을 확대해 유치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통해 남해안남중권이 국제도시의 메카로 도약하고, 동서화합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생 종합 스포츠대회로, 150여 개국 10,0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며, 2년마다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2027년 충청권에서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 장성군, 제48회 장성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 접수

### 교육·문화·예술 등 5개 분야... 8월 29일까지

장성군이 제48회 장성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8월 29일까지 받는다.

접수분야는 △교육·문화·예술 △사회복지·체육 △향토방위 △산업경제 △농업 5개 부문이다.

자격요건은 △각 분야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 △도단위 이상 공식 대회나 전시회, 학술연구 등에서 뛰어난 성

적을 거뒀거나 창의·개발정신을 보여줘 국가적 보훈 가치를 공인받은 경우 △해당분야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 몰입양면으로 공이 큰 군민이다.

추천은 개인 또는 기관·단체장, 읍면장이 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세대주 2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는 8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상은 9월 26일 군민체육대회와 함께 열리는 장성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장성군 총무과(061-390-7041),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황해연 기자

# 고흥군, 여름철 성수기 대비 민간 수영장 특별점검 나서

### 고흥군민이 안심하는 여름! 수영장 집중 점검 및 안전 수칙 홍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4일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관내 민간 수영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 대상 안전수칙 홍보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조장비 비치 여부, 수질관리 상태, 비상시 대처요령 안내, 시설 노후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수영장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 안내 등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주요 홍보 내용은 ▲수영 전 준비운동 실시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적신 후 천천히 입수 ▲50분 수영 후 10분 휴식으로 과로 방지 ▲음주 후 수영 금지 ▲어린이

보호자 동반 관장 등이다.

점검 결과, 해당 수영장은 구조장비와 수질관리 등 기본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군은 앞으로도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찾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인가  
기어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면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범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